

결 정

2018 - 3075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의 2018년 1월 17일자(캡처시각) 「“내가 좀 잘 해” 양정원, 야릇한 신음...」 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동아

나눔스퀘어 Light Extr

× 구독해지 이용자 한마디 01-17 17:56 편집

TOP 최승호 사장 “배현진 아나운서 거취는...” 파격적

“내가 좀 잘해” 양정원, 야릇한 신음...

- ‘성매매 논란’ 성현아, 7년 만에 결국 파격...
- “박소현♥지상렬 혼인신고” 진실 알고보니...
- 정만식 “와이프와 마주치면 해”... 폭탄 고...
- 김원효♥심진화, 부내나는 저택... 美 전원...
- 재벌 2세와 ‘음란 동영상’ 여배우, 상상초...
- 김구라, 말실수로 결국... 예상하지 못...
- ‘경희대 특혜’ 정용화, 고심 끝에... 총...
- ‘성추문 스캔들’ 유명 배우, 결국 분량...
- “폭행-불륜이 전부가 아냐” 김새롬 눈...

‘심쿵’ 레드벨벳 조이 파격 어깨 노출

김준희, 섹시美 뽀뽀 핑크빛 레깅스핏

이수민, 수영복 입고 활짝 미소, 男心 흔들

빅토리아... 출... 건...

<캡처시각 18. 1. 17. 20:25>

『연남동 539』 최우혁×양정원, 19禁 아이디어로 상상력 자극

입력 2018-01-17 15:09:00

연남동 피트니스센터 한 식구인 오윤아와 양정원, 최우혁이 19금 아이디어로 대대적인 매출 증대에 나선다.

17일 방송되는 MBN 시추에이션 드라마 '연남동 539'에선 피트니스센터 대표인 윤이나(오윤아)가 직원들과 함께 매출 증가 방안 회의에 돌입한다. 이날 윤이나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회원이 늘어날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죠"라며 직원들을 향해 각자의 아이디어를 요구했다.



이때 필라테스 강사인 양수리(양정원)가 신선하고 파격적인 19금 아이디어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양수리는 "조금 전 필라테스 수업 후 자세교정을 받던 회원님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운동 끝나고 마사지를 받으면 세상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 우리 센터에서 PT와 마사지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면, 고가의 마사지 비용은 아끼면서 PT도 받을 수 있으니 좋을 것 같다. 신규 회원도 늘고 센터 매출도 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여기 전문가도 있다. 트레이너 구태영(최우혁) 쌤이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두 사람은 회원들 앞에서 19금 야릇한 상황을 연출하며 과감하게 시범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달콤야릇한 몸짓과 대사, 센터를 가득 메우는 양정원의 신음소리가 더해지며 시청자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 묘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양수리가 "왜 이렇게 온 몸이 다 아프지?"라고 운을 떼자, 구태영이 "양필라쌤, 근육이 많이 뭉쳤나보다. 마사지 한 번 받으면 짹 풀릴 것 같다"면서 새로 만든 스포츠 마사지가 포함된 PT프로그램을 권유했다.

이에 양수리는 "너무 시원하다. 역시 태영쌤이다. 덕분에 신세계를 경험했다"고 감탄하며 구태영을 향해 연신 브라보를 외쳐댔다. 이와 같은 반응에 질세라, 구태영 역시 "제가 조금 잘 한다"고 으쓱해하며 거만한 표정을 지어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또 "PT 끝난 뒤 이 스트레칭 마사지가 포함돼 있다"는 깨알 홍보도 잊지 않았다.

두 사람의 찰떡 케미스트리에 이를 지켜보던 회원들 역시 '혼자 운동하니까 몸이 안 만들어지나' '하긴 PT를 받으면 몸 만드는 속도가 다르긴 하더라' '온몸이 무겁고 찌뿌듯하다' '마사지 받을 때가 됐는데'라며 무한 관심을 보여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과연 새로운 19금 아이템에 회원들의 지갑은 열릴 수 있을까. 방송은 오늘 17일 밤 11시.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80117/88210941/1>>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MBN 드라마 '연남동 539'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는 장면을 소개했다. 극중에서 피트니스센터 매출 증가 방안을 논의한 끝에 PT와 마사지를 결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자는 아이디어가 통과됐다. 필라테스 강사들이 회원들 앞에서 마사지 시범을 보이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달콤아름다운 몸짓과 대사, 센터를 가득 메우는 양정원의 신음소리가 더해지며 시청자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 묘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상황을 묘사했다.

그런데 남성 트레이너가 “(마사지를)내가 좀 더 잘해”라고 했음에도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마치 양정원이 한 말처럼 「“내가 좀 잘해” 양정원, 아름다운 신음…」 라고 제목을 달아 아름다운 성적 상상력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2월 7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이 동 현	이동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하윤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현 갑	박현갑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